

## 제2의 이종범? 제1의 김도영!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프로 3년 차에 '20-20'을 이루면서 본격적인 야구 기록 행진에 나섰다.

〈KIA 타이거즈 제공〉

## '디펜딩 챔프' 이탈리아 '극장골'...유로 16강 진출

### 크로아티아와 무승부로 조 2위

이탈리아가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크로아티아와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하며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이탈리아는 25일 독일 라이프치히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로 2024 조별리그 B조 최종 3차전에서 크로아티아와 1-1로 비겼다.

앞서 알바니아를 잡고 스페인에는 패했던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는 1승 1무 1패로 승점 4를 쌓아 3전 전승의 스페인(승점 9)에 이어 B조 2위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이탈리아는 A조 2위 팀인 스위스와 16강에서 격돌한다.

크로아티아는 2무 1패로 3위(승점 2)에 그치며 16강 진출이 쉽지 않게 됐다.

이번 유로에선 6개 조 1, 2위 팀이 16강에 오르고, 3위 팀 중 성적 상위 4개 팀도 16강에 진출한다. 크로아티아는 다른 조 3위 팀 결과를 기다려

야하는 처지다.

전반을 득점 없이 맞선 뒤 크로아티아가 후반 9분 앞서 나갈 기회를 잡았으나 살리지 못했다.

이탈리아 다비데 프라테시의 핸드볼 파울로 크로아티아가 페널티킥을 얻었지만, 키커로 나선 루카 모드리치의 슈팅이 잔루이지 돈나룸마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다.

하지만 크로아티아는 약 1분 만에 모드리치가 실축을 만회하는 선제골을 터뜨리며 리드를 잡았다.

38세 289일의 모드리치는 2008년 대회에서 이비카 바스티치(오스트리아)가 남긴 38세 257일을 뛰어넘는 유로 최고령 득점 신기록을 작성했다.

이대로 끝난다면 크로아티아가 조 2위로 16강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탈리아는 후반전 8분의 추가 시간 중 7분도 넘게 지나가 패색이 짙어졌을 때 마티아 자카니의 동점 골이 터지며 마지막 순간에 2위 자리를 쟁취했다.

리카르도 칼라피오리가 중원에서 불을 잡고 물고 가다가 내준 패스를 자카니가 페널티 지역 왼

쪽에서 받은 뒤 날린 오른발 슈팅이 절묘한 궤적으로 골대 오른쪽 구석을 파고들었다.

지난 2경기에서 크로아티아(3-0), 이탈리아(1-0)를 연이어 격파하고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했던 스페인은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최종전에서 알바니아를 1-0으로 물리치고 이번 조별리그를 무실점 3전 전승으로 마무리해 조 1위를 차지했다.

전반 13분 다니 올모의 스투페스를 받아 페란 토레스가 넣은 한 골을 스페인이 끝까지 잘 지켰다.

스페인의 16강 상대는 조 3위 팀 중 추후 결정된다.

알바니아는 크로아티아와 2차전에서 2-2로 비긴 것으로 유일한 승점을 따내며 조 최하위(승점 1)에 머물렀다.

한편 이날 마무리된 B조 결과에 따라 잉글랜드와 네덜란드, 프랑스는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르지 않은 가운데서도 최소 조 3위 상위 4개 팀 중 한 자리는 확보할 수 있게 돼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KBO 리그 최초 '월간 10홈런-10도루' 이어 전반기 '20-20' 달성  
"시련의 시간, 조급함 대신 여유 생겨...평정심 유지하며 성장할 것"



제2의 이종범? 제1의 김도영? 역사가 시작됐다.

KIA 타이거즈 김도영은 올 시즌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 중 한 명이다.

김도영은 지난 4월 KBO리그에 없던 '월간 10홈런-10도루'라는 기록을 만들었다. 지난 23일에는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20-20'까지 완성했다.

'괴물' 류현진을 상대로 만든 기록이라 더 극적이었다.

1회초 김도영과 류현진의 눈길 끄는 첫 맞대결이 펼쳐졌다. 3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한 김도영은 2사에서 류현진을 마주했고, 3구째 스탠딩 삼진으로 물러났다.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했던 류현진의 노련함과 제구가 빛난 장면이었다.

김도영은 "당했다"며 류현진을 마주한 첫 타석을 이야기했다.

김도영은 "전력분석을 했을 때 변화구 비율도 높았다. 어느 정도 그려놓은 변화구 구종 같은 게 있었는데 초구 직구가 왔다. 두 번째 커터는 나한테 떨어 보였다. 가까이 왔으면 방향이 나갔을 것인데 선에 걸릴 정도로 정확히 제구가 됐다"며 "월래 투나칭에서는 그런 공에 나가는데 당했다. 땀을 어울 몰랐다. 변화구로 유인하겠다 생각하면서 존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 바깥쪽 직구에 손이 안 갔다"고 설명했다.

3개의 공을 지켜본 뒤 그대로 벤치로 물러났던 김도영은 4회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섰다.

초구 스트라이크를 다시 흘려보낸 뒤 낮게 변화구가 빠지면서 1스트라이크 1볼, 김도영이 3구째 125km 체인지업에 반응했다. 김도영의 방망이를 떠난 공은 175.59km의 스피드로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면서 비거리 130m의 홈런이 됐다.

이날 경기 전까지 22도루를 기록하고 있던 김도영은 이 홈런으로 '20-20'을 완성하면서 단숨에 리그를 대표했던 타자들과 이름을 나란히 하게 됐다.

'20-20'은 타이거즈의 12번째, KBO리그의 57번째다. 2018년 로저 배나디에 이어 기록이자 국내 선수로 따지면 2003년의 이종범을 소환해야 한다.

또 김도영은 20세 8개월 21일의 나이에 기록을 만들면서 김재현(LG·18세 11개월 5일)에 이어 최연소 '20-20' 2위에 이름을 올렸다.

73경기에 기록을 완성하면서 이병규(LG·68경

기), 박재홍(현대·71경기)에 이어 테임즈와 최소 경기 공동 3위 주인공이 된 김도영. 전반기에 '20-20'을 만든 선수로도 박재홍(1996-2000년), 이병규(1999년), 테임즈(2015년)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김도영은 "매 타석 직구를 생각하고 나간다. 직구 오면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타석에 들어갔는데 체인지업이 왔다. 치면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그 타석에서 체인지업이 이렇게 오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3구째 직구를 노렸는데 체인지업이 그것보다 하나 더 들어왔다. 생각한 대로 타격이 돼서 신기했다. 신기하고 기분이 좋았다"고 기록의 순간을 이야기했다.

이러진 부상으로 부침의 시간을 보냈던 그는 프로 3년 차에 자신의 역사를 시작했다. 시련의 시간이 김도영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고 있다.

김도영은 "시즌 초반에는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올해는 이리다 끝나겠구나'하고 내려놨었다"면서도 "확실히 작년, 재작년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크게 조급하지는 않았다. 플레이하면서 보이는 것에도 여유도 생겼다"고 말했다.

또 실패와 성공의 경험이 '꾸준함'을 만들었다.

김도영은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올라온다 이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게 맞다. 좋을 때 애썼는지 이런 걸 적어놔서 (페이스가) 떨어져도 짝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기록도 잘 나오니까 평정심으로 야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성고 시절부터 '제2의 이종범'으로 주목을 받았던 김도영은 타이거즈의 마지막 1차 지명 선수다. 한화 이글스의 '강속구 투수' 문동주와 발표날까지 1차 지명 경쟁을 벌였던 김도영은 KIA의 선택을 받은 뒤 "이종범의 플레이를 하면서 제1의 김도영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었다.

그리고 올 시즌 김도영이 자신의 바람대로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김도영은 "팬분들이 바라시는 것도 그렇고 '제1의 김도영'이 되라고 많이 말씀하신다. 말한다고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미숙한 것부터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매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김도영'이라고 생각한다. 제1의 김도영 좋다"고 이야기했다.

이종범을 떠올리게 하는 플레이로 올드팬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김도영이 고졸 3년 차에 '김도영의 야구'를 열면서 관중석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홈런더비' 출전 올스타 27일까지 팬투표

### KIA 김도영·최형우 등 후보 12명

팬들이 직접 '홈런더비'에 나설 올스타를 뽑는다. KBO가 25일 올스타전 컴퓨터프로야구 홈런더비에 나설 선수를 선정하는 팬투표를 시작했다. 이번 투표는 KBO 올스타 홈페이지와 KBO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7일 오전 10시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올 시즌 기존의 '홈런레이스' 명칭을 '홈런더비'로 변경한 KBO는 참가 선수를 자체 선정하던 방식에서 100% 팬투표로 바꿨다.

24일 기준 10개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이 후보로 결정됐다.

KIA에서는 23일 '괴물' 한화 류현진을 상대로 시즌 20번째 홈런을 선보인 김도영과 17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한 최형우(15개)가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김도영 최형우와 함께 박동원·오스틴(이상 LG),

노시환·페리자(이상 한화), 로하스(KT), 최정(SSG), 김형준(NC), 양석환(두산), 구자욱(삼성), 김혜성(키움) 등 12명의 '홈런타자'가 팬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12명 중 상위 8명의 선수가 7월 5일 퓨처스 올스타전이 끝난 뒤 진행되는 '홈런더비'에 나선다.

우승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500만원 그리고 LG 시넬림 큐브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준우승 상금은 100만원이다. 최장거리 홈런을 기록한 선수는 삼성 갤럭시S9를 받게 된다.

또 외야일부 구역은 '컴프야존'으로 설정해 해당 구역으로 가장 많은 공을 보낸 선수에게 '컴프야존 최다홈런상'이 수여되며, 수상 선수의 모교에 100만원 상당의 야구 용품이 기부된다.

투표는 1일 1회 참여할 수 있으며, 팀 구분 없이 3명에게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 현황은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28일 최종 명단이 발표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김하성이 시작, 김하성이 끝냈다

### ML 워싱턴전 기습 번트로 선제점·연장 10회 끝내기 득점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기습 번트 안타로 선제 타점을 올리고 끝내기 안타에 팀의 마지막 득점도 수확했다.

김하성은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팻 코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MLB)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경기에서 7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해 3타수 1안타를 때리고 타점 1개, 득점 2개를 올렸다.

김하성은 0-0인 2회말 1사 1:3루 첫 타석에서 초

구에 스윙즈 번트로 내야 안타를 기록했다.

샌디에이고가 5-6으로 추격하던 연장 10회말 무사 1루에서 김하성은 볼넷을 클라 역전 주자가 됐다. 샌디에이고는 계속된 2사 만루에서 터진 유릭슨 프로파르의 2타점 역전 결승 2루타에 힘입어 7-6으로 짜릿한 뒤집기 승리를 거뒀다.

김하성의 타율은 0.221로 약간 올랐다.

/연합뉴스